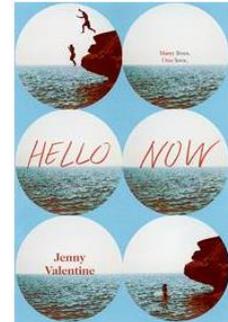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HELLO NOW
가제 : 안녕, 지금
저자 : Jenny Valentine
출판사: Philomel Books
발행일: 2020년 3월 31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가디언 아동 소설상 수상작, 카네기 메달 결승작을 쓴 작가의 신작
- * 영화 슬라이딩 도어스, 데이빗 레비선의 YA 판타지 소설 『Every Day』를 떠올리게 하는 사랑과 두 번째 기회에 관한 매력적인 이야기

사랑을 믿지 않는 소녀, 달달한 건 숨사탕도 싫어하는 주드에게 온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린 낯선 소년이 나타난다. 원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늘 해왔고 어지간한 일에는 별로 놀라지도 않는 주드에게 노보는 매순간 놀라움을 선사하는 마법 같은 존재가 되었다. 새로 이사온 집 건너편에 갑자기 나타난 시간 여행자 노보와의 만남,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새로운 ‘지금’이 될 수 있는 신기하고 이상한 경험은 처음 느낀 사랑의 감정과 함께 주드를 사로잡는다. 하지만 ‘지금’도 매번 변하는 사람과의 사랑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엄마의 고향이라는 바닷가 작은 마을로 세간살이를 전부 옮긴 건 열 세번째 이사였다. 성인이 되자마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는 마을, 이제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이 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주민들만큼 오래된 굵직한 나무들이 거리를 꼭 채운 곳을 엄마는 새 출발의 터전으로 정했다. 주드의 아빠를 비롯해 그동안 엄마 곁을 스쳐간 남자친구들과 이별할 때마다 새로운 출발을 부르짖던 엄마는 이번에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았다.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은 정말 마지막 안식처가 될 줄 알았기에, 그리고 주드가 보기에라도 자신을 불필요한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던 이전 남자들과 달리 주드를 진심으로 잘 챙겨준 사람이었기에, 이별은 엄마에게 큰 타격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근근이 먹고 사는 형편에 새 출발은 그리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엄마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금지막한 집 한 채를 혼자 쓰고 있는 노인의 집에 세를 얻는 것이 전부였고, 그렇게 주드는 헨리 레이크 씨의 바닷가 근처 저택으로 들어간다. 몇 살인지 가늠이 안 될 만큼 나이가 아주 많아 보이는 헨리는 하루 종일 집 안에서 노트북을 앞에 놓고 전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괴짜 노인이었다. 이사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현관에 나와 어쩌다 이렇게 낯선 사람과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지경이 됐나,

풀이 죽어 앉아 있던 주드는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처럼 나타난 새카만 차를 발견한다. 군데군데 찌그러진 까만 차는 바로 길 건너편 이웃집 앞에 멈춰 섰고 곧 호리호리한 체격에 까만 머리를 가진 소년이 운전석에서 내린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친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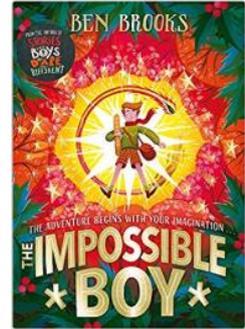
얼마 후, 해변에 산책을 갔다가 노보라는 이름의 그 아이를 다시 우연히 만난 주드는 그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는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함께 하게 될 텐데,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수락할 것인지, 거절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다. 대체 뭘 함께 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주드는 너무 궁금했지만 노보는 씩 웃기만 할 뿐, 아무 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수락하라고, 함께 해보자는 그 미소에 주드는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한다. 논리도, 시간도 무색한 사랑, 모든 것을 집어 삼킨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은 어쩌면 그 순간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노보는 시간을 마음대로 잡고, 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시간마저 거대한 우주 속에 스쳐가는 점이 되어버리는 곳에 진입해서 시대와 장소를 거슬러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눈을 뜨는 시간 여행자였다. 차가운 밤공기를 맞으며 사막에서 눈을 뜨기도 하고 한낮 인파로 가득한 대도시 거리에서 눈을 뜨기도 하는 노보에게는 지금 눈 앞에 있는 순간이 현실이었다. 무작위로 찾아오는 현실을 향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듯 안녕, 하고 인사하고 그 순간을 지금으로 살아내는 것, 노보는 주드에게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었다.

어차피 곧 지나가버릴 순간임을 알기에 노보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도 큰 애착을 느끼지 않았고 그저 최선을 다해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했다. 노보가 있는 특정한 순간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다시 다른 곳, 다른 시간으로 가야하고 어떤 경험을 하든 반드시 과거의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드와 만나면서, 노보에게 처음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주드와 이야기하고, 눈을 마주보고, 그 눈 너머의 존재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단단한 유대가 형성되고 노보의 마음 속에 '머물고 싶다'는 감정이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 사이, 주드는 집주인 헨리가 노보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노보와 같은 시간 여행자였던 헨리는 주드에게 직접 그린 초상화 속에 담긴 아름다운 여인은 아주 먼 옛날 헨리가 만났던 유일한 사랑이었으며 그녀와 함께하겠다는 선택으로 수백 년째 이 시대, 장소에 붙들리고 말았다고 털어 놓는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던 헨리의 연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고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의 원자 같은 존재, 인간도 무엇도 아닌 헨리는 그저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쭉 머물게 된 것이다. 노보와의 강렬한 사랑이 얼마나 서글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게 된 주드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 사랑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끌림, 사랑, 상실을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심오하게 고찰하는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니 발렌타인(Jenny Valentine)은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소설 『Me, the Missing, and the Dead』로 데뷔했다. 해당 소설은 미국 모리스 어워드 결승에 올랐으며 영국에서 『Finding Violet Park』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2007년 가디언 아동 소설상을 수상했다. 『Fire Color One』은 카네기 메달 후보로 선정됐다.

제목 : THE IMPOSSIBLE BOY
가제 : 사람이 된 세바스찬
저자 : Ben Brooks
출판사: Quercus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분량 : 256쪽
장르 : 모험



*** 전 세계 22개국에서 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Stories for Boys Who Dare To Be Different』
작가의 신작**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되는 엠마와 올렉은 중학교 시절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한다. 지금 상태로는 지루하게 흘러가버릴 것이 뻔했다. 엠마는 여섯 살짜리 남동생이 얼마 전부터 감기로 고생이라 일하러 가야 하는 엄마 대신 돌봐야 하고, 아빠, 할머니와 함께 사는 올렉 역시 맨날 바쁜 아빠와 기운 없이 앉아 계시기만 하는 할머니 사이에서 대충 시간만 때우는 것 외에 별 계획이 없었다. 항상 죽이 척척 맞게 웃기고 색다른 일을 찾아서 다 해보는 것이 취미인 두 단짝 친구는 오랫동안 함께 붙어 다니면서 놀다가 최근 이사를 가버린 새라의 빈자리를 상상 속 친구로 채워보자고 의기투합한다. 사실 처음에는 같은 반 다른 친구들 중에 새라의 자리를 대신할 후보가 있는지 생각해봤지만 만사에 너무 진지해서 엠마와 올렉의 엉뚱함을 받아주지 못하는 라이언이나 친구들보다는 선생님들과 친해지는 일에 더 열심인 오라, 거짓말쟁이 칼리 등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럼 새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올렉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종이를 한 장 펼쳐놓고 이름부터 정하기로 한다. 떠나간 친구는 여자였으니 이번에는 남자라고, 세바스찬 콜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엠마와 올렉은 ‘세바스찬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토대로 가상 친구의 학교 생활과 일상을 마음대로 상상해서 글로 옮긴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새 친구가 정말로 딱 하니 눈 앞에 나타나리라고 과연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칠 후, 학교 정원과 맞닿은 곳에 있는 엠마와 올렉의 은신처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나타나고, 겁에 질린 두 사람 앞에 웬 낯선 소년이 나타난다. 세바스찬 콜이었다.

담임 선생님 대신 임시 선생님이 오신 것을 은근슬쩍 악용한 것이 이 믿기 힘든 일과 관련이 있을까? 세바스찬 콜에 관한 글을 쓰는 일에 너무 심취한 엠마와 올렉은 며칠 전, 교문이 열리자마자 아무도 없는 텅 빈 학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재학생 등록부에 세바스찬의 이름을 이름을 올렸다. 이사로 전학간 새라 대신 두 사람의 상상 속 친구를 공식 서류상으로도 진짜 같은 학교 학생으로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장난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임시 선생님은 누가 누구인지 이름도 다 모르는 상황이니 한 명쯤 출석부에 이름이 늘어나도 절대 모를 것이라는 확신도 한 몫 했다. 그런데 진짜로 세바스찬이 두 눈 앞에 나타나다니! 게다가 세바스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마치 각본에 있는 대사를 읊듯이 엠마와 올렉이 쓴 글을 그대로 옮긴 것 같았다. 무엇이든 다 들어 있는 책가방

도 진짜 가지고 있고, ‘소름 돋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피자는 절대로 먹지 않는 것까지 두 사람이 만들어낸 특징을 다 갖고 있었다. 이게 대체 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엠마와 올렉은 일단 세바스찬이 ‘살아 숨쉬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으니, 학교에 데려 가기로 결정한다. 같은 반 친구들은 놀라겠지만 선생님은 출석부에도 이름이 나온 아이니 받아들여줄 것이고, 그럼 어떻게든 돌려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세바스찬은 엠마, 올렉의 단짝 친구가 되어 요술 책가방을 들고 바로 다음 날부터 등교를 시작한다.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웃차림도 영 독특하지만 유쾌하고 개성 넘치는 세바스찬은 곧 아이들에게도 호감을 얻기 시작한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시, 엠마와 올렉은 누군가 세바스찬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우연히 만난 천재 과학자의 도움으로, 엠마와 올렉은 어쩌다 글로 묘사된 세바스찬이 종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됐는지 알게 된다. 지구에 특별한 유성이 떨어진 날, 우주의 배열이 뒤틀린 순간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날, 세바스찬이 툭 튀어나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포착한 ‘비현실 연구소’의 수상한 존재들은 얼른 세바스찬을 잡아들여서 가둬놓고 다시 없었던 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야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세상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맹렬히 추적하는 이 알 수 없는 존재들의 손아귀에 잡힐 뻔한 위험을 몇 번이나 넘기면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엠마와 올렉은 세바스찬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휩싸인다. 우주의 마법 때문이건 어떤 이유에서건 살아 있는 세바스찬을, 그것도 이야기책 속에서 튀어나온 주인공처럼 한 없이 순수하고, 다정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친구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한참 고민한 끝에, 엠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처음부터 이야기 속에서 나온 존재니까,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바스찬을 그 이야기의 세계로 보내는 것이다. 올렉은 아빠로부터 오래 전에 할머니가 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였다고 들었던 기억을 번뜻 떠올린다. 커피를 내리 수십 잔씩 마시면서 하루 저녁 사이에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쓴 적도 있다고 아빠는 자랑스레 이야기하곤 했었다. 올렉과 엠마는 상상력이 다 고갈되어 펜을 잡은 지 너무 오래됐다고 한탄하는 할머니에게 세바스찬이 처한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우주의 먼지처럼 친구가 사라지지 않게 할 방법은 새로운 이야기밖에 없다고 열심히 설득한다. 과연 할머니는 세바스찬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밝고 명랑한 세바스찬의 배꼽 잡는 행동들과 감당 안 되는 독특한 말과 행동이 시종일관 웃음을 자아내고, 그를 먼저 한 톨로 만들어버리려는 악당들의 매서운 추적이 박진감을 더하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특히 이미 또래들과 다른 남다른 상상력으로 재미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엠마, 올렉이 세바스찬과 진정한 3인방이 되어 펼치는 모험이 아주 흥미롭다.

<저자 소개>

벤 브룩스(Ben Brooks)는 내셔널 북 어워드 ‘올해의 아동서’ 우승작 『Stories for Boys Who Dare To Be Different』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다.